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요나 · 아모스 · 호세아 · 미가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창 30 회

충현교회

무 학 코 서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8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요나 · 아모스 · 호세아 · 미가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진짜!



우리는 세상에 의해 속는 때가 참 많습니다.
못 사람들에 의한 평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위,
그리고 사회가 인정하는 권위 등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인 듯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규명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인간의 본질을 고발하고 인간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고함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날 일이겠지요.
그 날, 그 시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명백해질 일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박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속히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2002년 8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소선지서 서론

소 선지서는 대 선지서의 계속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연대적으로 소 선지서들이 전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기간에 속한다. 둘째 장소적으로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 셋째 기록한 인물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다. 넷째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의 중심 내용은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감동과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소 선지서의 사상 내용은, ①열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다. ②이스라엘 민족이 각국에 분산될 것이다. ③열국이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④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⑤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시아, 미가

2) 잔존 왕국 시대의 선지자들 :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3) 바벨론 포로 시절의 선지자들 : 다니엘, 에스겔

4)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의 선지자들 : 학개, 스가랴, 말라기

(참고적으로 언급한다면, 8월호와 9월호 총현의 만나는 기존의 성경에 니열된 순서를 떠나서 위의 나뉘어진 소 선지들의 순서로 편성되었음을 밝힌다)

1. 요나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상대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는 내용과 그 경고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내용이다.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과, 회개하는 백성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화려했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스라엘은 온갖 악을 자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드고나 출신의 농부요 목자인 아모스(B.C. 765-755)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렬히 비판하게 하셨다.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서보다 8세기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 준다. 부자들이 상아궁에서 사치하는 모습, 백성들이 단과 벤엘에서 금 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아모스는 이스라엘 왕국이 장차 큰 압제자의 손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3.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몇몇 왕들의 통치 기간을 망라한 것으로 최소한 40년(B.C. 755-715)이 넘는다. 그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존재의 이유를 부여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도 이스라엘이 계속 죄 가운데 남아 있을 경우 앗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임을 선포했다.

4. 미가

예루살렘에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고 그와 거의 유사한 생애를 살았으나 그보다 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미가였다. 미가는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통치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목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통렬히 비난했다. 또한 백성들이 종교의식은 거행하지만 그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음을 책망했다. 특별히 미가서는 말일에 하나님의 산인 시온이 임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일을 행할 하나님의 대리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한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사로잡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공황을 잊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1:1~17).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지내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을 구원할 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나가 어떠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장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바다 속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2절). 하나님께서는 시공(時空)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시 139:8~10).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를 원하십니다(딤후 2:8). 요나는, 자신이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공호와 권능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5, 6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자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9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죄 중에 빠져 나약하고 패역한 존재인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 나라인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4절)라며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과 왕은 놀랍게도 그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믿었고, 왕은 전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5~7절).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5절 상).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 말씀을 수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8, 9절). 정말 그들의 믿음과 확신대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는 믿음과,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敎罪)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이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확신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동일시하여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화로 그 심판이 유보되자 그만 하나님께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4절)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깊은 뜻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 넉줄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시들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큰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도 하찮은 박 넉줄은 아끼면서 그보다 더 귀한 인간의 생명은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박 넉줄을 내가 아꼈거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책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 잡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뜻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모스서에는 선지서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심도 있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 2장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다메섹(3~5절)과 가사(6~8절)와 두로와 에돔(9~12절) 그리고 암몬 족속(13~15절)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메섹을 비롯한 4개의 나라들의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포악(3절), 인신 매매(6, 9절), 인명 살상(11, 13절)등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패하고 잔인한 악행을 자행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7, 8, 10, 12, 14, 15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국가의 힘이 집중되고 있는 궁궐들을 불사름으로 심판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심판 예언들은 일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방들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예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한 권능으로 마지막 날에 이방을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세상을 제거하시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죄악된 열방의 멸망을 보면서 매일 매일 우리 속에 죄된 부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기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악된 세력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와 내 가족 속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모압에 대한 예언(1-3절)으로 일단락되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이방 국가들에게 사용했던 심판의 선고 형식이었던 "...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4, 6절)라는 표현을 유다와 이스라엘에도 적용시킴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장 4~8절에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멸시해 버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스려 행하였습니다(6-8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대강령(大綱領)을 주셨으나(마 22:37~40) 이들은 이것을 멸시하였음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거짓 것에 미혹되어 허탄한 우상 숭배를 하였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며 온갖 부끄러운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온갖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삶의 터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며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창 15:12~21)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1절).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2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언받고 있습니다(9-15절).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포악과 겁탈을 쌓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의'와 '무법' 그리고 '파괴'와 '살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무도한 죄악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성 안에서 저지른 이런 죄악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과 하등 차이가 없는 심각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악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겸손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가 형식화될 때 개인에게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모스 역시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 외에도 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민 28:3).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당신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주지시키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은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그만 습관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였던 벰엘과 길갈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일 아침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삼 일마다 십일조를 바쳤지만 그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워서 도저히 그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 형식적으로 성경을 들고 교회의 문을 출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모스는 앞의 두 장(3, 4장)에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으로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본 장과 6장에서 아모스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참담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애가(哀歌)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1, 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비록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14절). 여기에 나타난 '선'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 행하는 신본주의적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악'이란 인본주의적인 자기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행하는 타락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살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15절).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그 사회가 선과 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패역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세우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악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여전히 남겨진 죄의 흔적 때문에 이같은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참으로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한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부흥하고 국민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고 부패한 지도자는 그 나라와 국민을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일하며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안일하다'는 말은 매사에 게으르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으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군사적, 경제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대부분의 피폐한 백성들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극도의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진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심판 날(홍한 날)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3~6절).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둔 백성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복음으로 바로 서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육신의 안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엄히 자신을 경계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장에서 6장까지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였습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을 환상으로 묘사하면서(1-9절) 아모스 개인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10-17절).

당시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판하는 아모스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거스리는 말로 나라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왕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거짓으로 고하였습니다(10, 11절). 그리고 아모스를 돈을 받고 예언하는 직업 선지자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12, 13절). 그러나 아모스는 아마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직업적인 선지자나 선지 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도 아니며, 단지 목자요 뿔나무를 베양하는 농부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목자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4, 15절). 그러면서 아모스는 굽히지 않고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17절).

아모스는 자신은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모습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지상명령(至上帝命)인 복음 전파에 매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명을 받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가끔 TV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허덕이는 나라들을 봅니다. 땅은 갈라지고 짐승들은 쓰러지고 물을 찾아 가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물이 없는 기근(飢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제사장의 나라인(출 19:6)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을 교훈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飢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상태는 마치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분한 마음의 울부짖음이었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간절하게 찾아 헤맬지라도 아무런 말씀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12절).

오늘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사실입니다. 더욱더 귀한 것은 비록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아올지라도,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는(시 42:1)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요 6:33).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시 147:3).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는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좇아 강림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상 만민을 복속하게 될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전해짐으로 세상 만국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저희를 본토에 심고 뽑히지 않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의 참 백성들인 영적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 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모아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안연(晏然)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장차 상속받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나라의 시민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을 구가했지만 영적으로는 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호세아는 그의 구체적 삶을 통해 심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는 보통 사람도 꺼리는 일인데,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극이며 수치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종종 혼인관계로 비유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후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본 남편을 버리고 아무 남자와 어울리는 여자처럼 주변 나라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성도의 영적인 순결이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잠시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고멜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고합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고멜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잠시 폐기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2-13절). 그러나 그 징계의 목적이 믿음의 정화에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14-23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면서 시련을 겪은 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봅니다(3절). 그래서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황폐한 광야로 보내지는 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 후에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5절). 그 은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이며(14-20절),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십니다(21-23절). 호세아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구원의 길이 열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됩니다(23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교만하고 우매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징계를 통한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교만한 마음과 헛된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멜은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않고 세 자녀를 낳기까지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주고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가축을 거둬하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나아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노예 한 사람의 가치(출 21:32)에 해당됩니다. 이는 고멜이 자유를 상실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스라엘이 자유를 상실하고 포로가 되어 노예생활을 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크나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5절). 그 약속은 백성들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악 속에 방황하는 인간을 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보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1-10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것입니다(11-19절).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진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모세를 대표로 하여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 19:8)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하면, 그 후에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또는 헌신으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온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셋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마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6절)하고 탄식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주신 한도 내에서도나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진실하게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호세아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 마디로 말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먼저 책망하십니다(1절).

백성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1-4절).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이스라엘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5-7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앗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왕하 17:3,4).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5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힘을 자랑하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평화를 오히려 향락과 타락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성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거나, 경건해야 할 삶이 탐욕과 이기적인 길로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름 지기 인간은 겸손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1-3절). 선지자가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백성들이 죄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3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6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하였다”(7절)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로 물든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10-11절).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둬지는 악순환을 여러 관점으로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는 범죄와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고 국제적으로는 잘못된 외교정책으로 외세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정일치(祭政一致), 곧 신정 공동체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에 종교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 문화와 윤리 생활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곧 신앙이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등 모든 것에 영향력을 가지며 외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 모든 분야의 부패와 잘못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 도적이 들끓고(1, 2절), 왕실에는 왕위 쟁탈전이 끊이지 않고(3~7절), 외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엇길로 가고 있다(8~16절)는 사실을 호세아는 일일이 지적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침상에서나 하나님을 찾으며 우상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는(14절) 이런 신앙은 정치와 사회, 경제, 윤리를 타락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를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겸손하고 마음이 열린 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지만 교만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다고 말합니다. 헛된 우상을 섬겨 나타난 결과(1~7절)와, 외세에 의존하여 멸망을 자초한 일(8-14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8장은 나팔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에게 최후로 경고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위하여 이사야(사 58:1), 에스겔(겔 33:3)도 동일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는 병사들을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불듯이 잠들어 있는 믿음 공동체를 각성시키기 위해 경고와 훈계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이러한 경고의 나팔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절). 선민이기 때문에 모든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갈 것이 아니라”(마 7:21)라고 하셨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임을 선지자는 예언합니다(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기 전에도 죄악에 상응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징벌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15~17절).

이스라엘은 타작마당 앞에서 난잡한 행위로 다산의식을 거행하며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종교의식을 본받았습니다(1절).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3절). 가나안 땅에서의 추방은 더 이상 수확의 기쁨이나 축제를 즐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찌라”(7절)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은 풍요하게 되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호세아는 이를 두고 “두 마음을 품어”(2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제1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두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1~8절).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야 하지만 마음 속 깊이 죄악이 뿌리내려 있으므로 반역을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결코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는 바로 고멜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로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자 자족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것, 주일날은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가 6일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겉으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자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에 온 정열을 바치는 것, 이러한 것이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마 6:24, 눅 16:3).

기도 제목 / 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본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됩니다. 패역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였어도(1-7절), 그분은 한번 주시기로 약속한 사랑을 변치 않고 베푸십니다(8-11절).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주옥같은 구절이 11장에 담겨있습니다. 1~4절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출 4:22, 23을 근거로 나타내고 있으며, 5~7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징계가 필연적임을 선언합니다. 8~11절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활한 계교와 속임수로 생존하려 할 때 참된 유익보다는 스스로 넘어지고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타락하며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최악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② 최은아 단기평신
도선교사(스리랑카)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
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죄악을 필두로 하여 정치와 외교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술수에 의지함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애굽과 앗수르에 의지했습니다(1절).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호세아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5, 6절). 왜냐하면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양국이 동맹을 맺을 때는 각각 그 나라의 신봉하는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조약의 당사자들은 각각 상대방의 신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신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과수꾼인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외교문제를 심각하게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필경은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됨을 경고하면서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복을 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제 자신이 날마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1-8절), 왕을 의지하면서(9-16절)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부르고 평안을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면 번영할 때는 항상 교만이 따르고, 교만은 불신앙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알이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들은 왕의 힘에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교만이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곤고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조금만 형통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제 갈 길로 행하는 우매한 인간의 속성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회개하는 데는 '이미 늦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인간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마지막까지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1절).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지자는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 용서에 대한 고백입니다(2절). 그리고 더 이상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3절).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패역함을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4절). 진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회개의 고백과 함께 그에 합당한 실천이 따를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심판을 거두십니다(5-8절).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이슬처럼 내릴 것이며(5절),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고(5절) 백향목처럼 자라게 할 것입니다(6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술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도 사랑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서는 유다 출신 선지자 미가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주제의 차이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5:2)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본장은 본서 전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적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와 심판이 진행될 것을 예언하는 전반부(1~7절)와 남 유다의 멸망과 포로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8~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출현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의지한 것입니다(5절).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외세의 침략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을 방패막으로 하여 타락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의 책망을 들으면서 혹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인간 전통과 헛된 미신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믿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바로 깨달아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서론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전장(1장)에 이어서, 본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장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범죄에 대한 원론적 진술이라면, 본장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범죄에 대한 집중적 고발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백성에게 행한 착취에 대하여 고발하는 전반부(1~5절)와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주장을 기술하고 있는 후반부(6~1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1, 2절).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 미가는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상류층들은 밤새도록 다음날 행할 죄악을 꾀했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밭과 집을 빼앗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토지나 재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근거한 각 지파에게 보장된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죄악으로 부패한 인생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 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층이 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공무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바로 총체적인 부패로 멸망의 위기에 왔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두령과 치리자들을 향해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진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야 할 제사장들은 자기의 샅을 바라고 악과 타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대의 죄를 고발하여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돈을 주는 자에게 편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토할 수밖에 없는 역겨운 냄새를 풍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와 백성들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파멸과 멸망입니다. 사회의 부정직과 부패를 막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이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전장(3장)에 이어서 본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상반된 주제가 연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장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본장 1~5절에서는 종말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만국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미가는 말일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시온을 가리킴, 2, 7절)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모든 열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완전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모여든 열국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심판하심으로 창과 칼 같은 전쟁 도구가 농기구로 바뀌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예언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게 됨으로 참된 평화의 시대가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메시아 시대의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요 14:27).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평안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놀라움과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15에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후 구약은 예수님의 사역과 탄생 그리고 그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예언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는 본문 2절에서 메시아의 탄생지가 베들레헴(번역하면 '떡집')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문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의 한 마굿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작고 볼품 없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 4, 5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 원리는 세상 지도자처럼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셨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를 구세주로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혹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문둥병 환자는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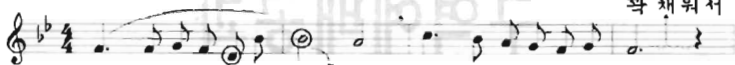
확실한 소망

• 찬송 / 541장(저 요단강 건너편에) • 본문 / 렘 51:50

모듬으로 ♩ = 92

음들 간에 서로 단절되는 느낌이 없도록

3박자를
꼭 채워서



분명히 들리게 음정 확실하게

1. 저 요 단 강 건 너 편 에 찬 란 하 게 되 는 짐
2. 주 가 내 게 무 탁 하 신 모 든 역 사 마 친 후
3. 성 도 들 이 힘 께 모 여 할 켈 루 아 부 를 때
4. 이 세 상 에 사 는 동 안 주 의 일 을 힘 쓰 고

음이 좀 낮지만 엄연한 강박이므로
이 음부터 힘있게 시작하여 찬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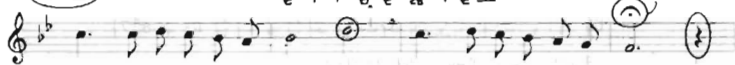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예 | 루 | 살 | 렘 | 새 | 집 | 에 | 서 | 주 | 의 | 얼 | 굴 | 되 | 오 | 리 |
| 예 | 비 | 하 | 신 | 그 | 집 | 에 | 서 | 주 | 의 | 얼 | 굴 | 되 | 오 | 리 |
| 나 | 도 | 기 | 쁜 | 마 | 음 | 으 | 로 | 화 | 답 | 하 | 여 | 부 | 르 | 리 |
| 썩 | 을 | 장 | 막 | 떠 | 날 | 때 | 에 | 주 | 의 | 얼 | 굴 | 되 | 오 | 리 |

가사에 대한 진정한 감동과 은혜를 느끼면서
충만한 감정 표현을 해보세요.

후렴

끝까지 힘을 잃지 말고

너무 길지 않게



- 빛 난 하 늘 그 집 에 서 주 의 얼 굴 되 오 리

호흡 충분히

감격에 가득찬 느낌으로 힘있게 한 음 한 음 다 소중히



- 한 랑 없 는 영 광 중 에 주 의 얼 굴 되 오 리

저 요단강 건너편에 (541장)

이 찬송은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인 캐리 브렉(Carrie E. Breck, 1855~1934)이 1898년에 작시하고, 역시 미국의 부흥 목사였던 그랜트 콜팩스 툴라(Grant Colfax Tullar, 1869~1950) 목사가 작곡한 찬송으로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의 작시자인 브렉 여사는 미국 버먼트 주 출신의 독실한 장로교인으로서 평생에 걸쳐 1,400여 편 이상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의 영감을 얻으며 시를 썼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찬송 '저 요단강 건너편에'의 가사를 쓰기 전에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찬송시를 써내려 갔을 것을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여 뵈을 날을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상상과 생각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지금은 실제로 얼굴을 알지 못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날 구원하여 주신 참 생명과 사랑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날 대신하여 온갖 멸시, 천대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세상도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인내하며 수고한 우리들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예수님을 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이 찬송을 불러 봅시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은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철저히 정복하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벌을 내리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4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재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삼아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무렵, 예루살렘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예루살렘에 마음을 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안주하고 정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임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인 새 예루살렘임을 배운다.
- ② 새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달음질을 하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예레미야 51:45~50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45절 - 스스로 구원하라

② 46절 - 두려워 말라

③ 47절~48절 - 바벨론

④ 49절 - 엄드러지리라

⑤ 50절 - 마음에 두라

2. 다음 주일 설교(‘확실한 소망’)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믿는 자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② ‘새 예루살렘에 동참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충현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③ ‘새 예루살렘을 사랑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말해보십시오.

④ ‘새 예루살렘을 소망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본향인 새 예루살렘이 마음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보십시오.

⑤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단원을 읽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확실한 소망'에 대한 마지막 단원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59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실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해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소서.
- ② 천국에 동참하는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③ 천국이 진실로 확실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 ④ 천국을 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⑤ 모든 식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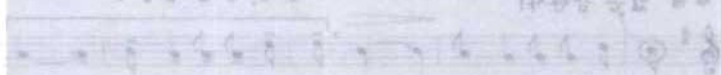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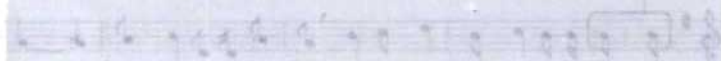
제목 :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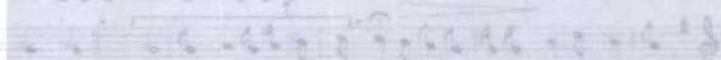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



（電話：一、四四三三） 重慶 永豐號 吳百治 吳世英



이제부터는
정신과
의사
가
아
니
라
고
하
고
있
습
니
다

[illegi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제 2 과

돌이켜 떠나라

• 찬송 / 336장(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본문 / 겔 14:6

조금 느리게 ♩ = 60

한 마디를 두 박자로 하여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회개의 심정을 갖고 찬송합니다.



1. 여 러 해 동 안 주 떠 나 세 상 연 락 을 줄 기 고
2. 죄 악 에 족 을 인 생 을 심 히 불 썩 히 여 기 사
3. 흥 포 를 입 은 구 주 는 가 시 면 류 관 쓰 시 고
4. 미 려 한 우 리 인 생 은 주 의 공 로 를 모 르 고

못갖춘 마디로 시작하는 것에 유의!(약박 - 강박)



- 저 흉 악 한 죄 에 빠 저 서 그 은 혜 를 잊 었 네
저 하 늘 의 영 광 버 리 고 이 세 상 에 오 셧 네
저 십 자 가 높 이 달 리 사 그 아 품 을 참 았 네
그 쓸 쓸 한 사 막 가 운 데 늘 헤 메 고 다 녀 네

추 련 참된 회개와 구원의 감격이 결단하는 심정으로
있는 감탄사! 한 음 한 음 간절히



오 사 람 의 예 수 님 내 맘 을 굴 었 니 다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곧 들 어 와 나 와 동 거 하 며 내 생 명이 되 소 서 아 멘

*다음 절을 시작할 때 다시 본래의 템포를 되찾아서
한 마디 두 박자의 느낌을 살려서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336장)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눅 15:20)

이 찬송은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며 찬송작가인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1899) 목사가 눅 15:15~20에 있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그렇습니다. 참 사랑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어떠한 죄라도 능히 사하여 주시며 참 생명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여자의 주위에 큼직한 돌맹이를 들고 금방이라도 그녀를 내리치려는 성난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난 군중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맹이를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 앞으로 다가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으로, 긍휼의 음성으로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면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인되었던 그녀는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어가면서(서론)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겔 14:6).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라고 충고하십니다. 이러한 권고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구약성경인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의 글을 읽게 되면, 이들이 '회개할 것'과 죄에서 '돌이켜 떠날 것'을 부르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에 의해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습니다(마 3:2). 또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서 돌이킨다는 것! 진실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회개에 대하여 배운다.
- ② 회개가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겔 14:1~6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① 1절 - 이스라엘 장로

② 2절~3절 - 자기 우상

③ 4절~5절 - 우상과 배반

④ 6절 - 돌이켜 떠나고

2. 다음 주일 설교(‘돌이켜 떠나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돌이킨다는 것’에 대한 단원을 읽고,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② '회개, 구원에 이르는 첫 걸음'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③ '회개는 하나님의 권고'에 대한 단원을 읽고,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십시오.

④ '회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에 대한 단원을 읽고, 회개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지 말해보십시오.

⑤ '참된 회개는'에 대한 단원을 읽고,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말해보십시오.

⑥ '회개는 자비의 음성'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회개가 자비의 음성이 되는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나라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들을 예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를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멀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우상들(돈, 위신, 권세, 등)을 외면하며, 당장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얼굴을 돌리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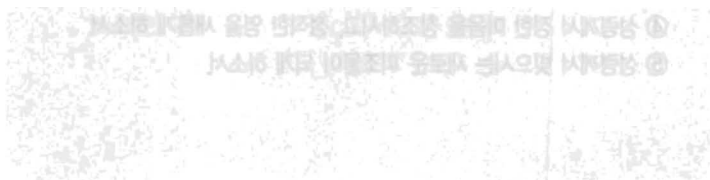
- ① 성령께서 내 영혼에 깊이 감추인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 ②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 ③ 내 자신의 모든 불의와 탐욕과 죄악을 버리게 하소서.
- ④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⑤ 성령께서 빛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3월

1. 출(공)



제 3 과

빛과 어두움

• 찬송 / 192장(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 본문 / 요일 1:5~2:2

모듬으로 ♩ = 92

이 곡의 주된 리듬 형태입니다.
계속해서 붓점(점음표)이 무더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1.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2.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3.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이 찬송의 첫째 둘째단은 어떤 면에선 노래라기보다는
독백조로 낭송하듯 말하는 느낌으로 찬송해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첫째 둘째단의 독백조의 찬송에 이어 후렴부터는
감정이 고조된 노래가 됩니다.

주렴

중. 큰 소리로

리듬 주의
(결연한 느낌으로)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절대 작아지지 말것!

힘차게, 특히 붓점 리듬을 분명하게 살려서 다시 차분한 느낌으로
마무리



우리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없이 십자가 지셨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19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작시자 캐리 브렉(Carrie E. Breck, 1855~1934)은 딸 다섯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바쁜 가사활동 중에서도 틈틈이 찬송시를 쓸 수 있었는데, 일생 동안 무려 1,4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찬송(찬192장) 역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라는 제목으로 작시된 것입니다. 곡은 미국 태생의 감리교 목사이며 찬송 인도자였던 그랜트 콜팩스 툴라(Grant Colfax Tullar, 1869~1950)가 작곡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어떤 중요한 삶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느 문제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찬송은 그러한 구원의 감격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 앞에서 여전히 형식적이고 무덤덤한 심정이라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 되신 주님을 좇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함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5절).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6절~10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2:1~2절).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고,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려서 열매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배운다.
- ② 어둠에서 빛으로 옮김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일서 1:5~2:2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 ① 5절 - 하나님은 빛이시라

② 6절~7절 - 사림

③ 8절 - 만일

④ 9절 - 만일

⑤ 10절 - 만일

⑥ 2:1절 - 예수 그리스도

⑦ 2:2절 - 화목 제물

2. 다음 주일 설교(‘빛과 어두움’)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이 질문이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② '하나님은 빛이시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③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이 질문이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④ '어둠이 아니면 빛 가운데에'에 대한 단원을 읽고, 어둠 속에 속한 것과 빛 가운데에 속했다는 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단원을 읽고, 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⑥ '예수 그리스도를'에 대한 단원을 읽고,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결론)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1:4,5,9; 3:19; 8:12; 12:4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얻는 회개와 용서가 빛에 거

하는 것이며(요 3:21; 8:12, 요일 2:12, 롬 13:12, 고후 4:6; 6:14, 살전 5:5, 약 1:7, 벰전 2:9),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고후 4:7, 벰후 1:1,4). 그러므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정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답변은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종교인들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떠한 가치를 소유했다고 해도 그것은 썩어질 세상의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어두움에서 빛에 들어가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 어두움이 무엇이며, 소유해야 할 빛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소서.
- ② 주께서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소서.
- ③ 어두움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소서.
- ④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 ⑤ 어두움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제목 :

본문 :

제 4 과

안에 거하라

• 찬송 / 411장(예수 사랑하심은) • 본문 / 요 15:7~11

4분의 2박자의 찬송이지만 너무 급하게 느껴지는
램포보다는 가사 하나하나가 잘 느껴질만한
여유있는 템포로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으로 ♩ = 92

한 음 한 음 또렷하게, 가사가 분명히 들리도록
발음하여 찬송합니다.(계속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1. 예 수 사 랑 하 심 은 거 록 하 신 말 일 세
2. 나 를 사 랑 하 시 고 나 의 죄 를 다 씻 어
3. 내 가 연 악 할 수 록 더 욱 귀 히 여 기 사
4. 세 상 사 는 동 안 에 나 와 함 께 하 시 고



우 리 들 은 악 하 나 예 수 권 세 많 도 다
하 늘 문 을 여 시 고 들 어 가 게 하 시 네
높 은 모 좌 위 에 서 낮 은 나 를 보 시 네
세 상 떠 나 가 는 날 천 국 가 게 하 소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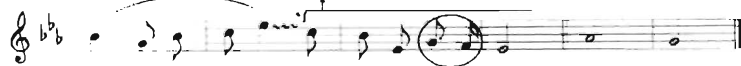
후렴에서의 세 번에 걸쳐 불러지는 '날 사랑하심'의 가사는
이와 같이 약간 무드럽게 그리고 감정을 듬뿍 담아서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 다 서로 다른 느낌으로 불러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요)

후렴



날 사 랑 하 심 날 사 랑 하 심
다음 가사까지 꼭 이어주는 느낌으로

다시 또렷한 느낌이 되어서



날 사 랑 하 심 성 경 에 써 있 네 아 멘
부점 리듬(흥겹게)

‘예수 사랑하심은’ (411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미국 뉴욕 태생의 안나 바틀렛 워너(Anna Bartlett Warner, 1824~1915)와 그녀의 언니 수잔(Susan)이 함께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주장과 징표(Say and Seal)」(1859년)의 내용 중에서 어느 신실한 주일 학교 교사가 병을 앓고 있는 한 어린이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오늘날 이 찬송(찬411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작곡은 당시 뉴욕의 한 침례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주일 학교용 찬송을 작곡하는데 전념하고 있던 19 세기의 유명한 찬송작곡가인 윌리엄 벤첼더 브래드버리(William Batchelder Bradbury, 1816~1868)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한 권세로써 성도들을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1절)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제 그 주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2절).

주님을 좇아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 한 순간도 그 사랑의 눈길을 나에게서 떼놓지 않고 계신답니다(3절).

세상에서 나의 육신의 삶이 다하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참 친구 되신 예수님~! 이제는 세상을 떠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소망을 주셨습니다(4절).

분명한 것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 2:25)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참고)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고난 주간의 목요일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롯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13장). 14-16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약속, 그리고 핍박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15장에서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있지만, 성령으로는(14:26-28) 몸으로 함께 있을 때보다 더욱 제자들과 연합된 관계로 열매 맺게 하시고, 제자들은 핍박 중에도 승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로 가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농부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포도나무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들 포도나무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니 가지가 붙어 있지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더 이상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배운다.
- ② 예수 안에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배운다.

5월 1주 금요일 5월 10일 **머물면서(본론)** 10월 10일 금요일 10월 10일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15:1~11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

5월 10일

① 1절~2절 - 과실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② 3절~4절 - 내 안에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③ 5절~6절 - 떠나서는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④ 7절 - 구하라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⑤ 8절 - 과실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⑥ 9절~10절 - 사랑 안에 거하라

5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⑦ 11절 - 기쁨

-
2. 다음 주일 설교(‘안에 거하라’)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남도 - 절5~절7 ①

- ② ‘예수님만 의지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이안 11 - 절4~절5 ②

- ③ ‘기도 응답’에 대한 단원을 읽고,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그가 12 - 절3~절5 ③

- ④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에 대한 단원을 읽고, 예수 안에 거하므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이안 12 - 절7 ④

남도 - 절8 ⑤

- ⑤ ‘계명을 지키므로 사랑 안에 거함’에 대한 단원을 읽고,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말해보십시오.

남도 12 - 절4~절9 ⑤

남도 - 절11 ⑥

1. 예수께서 드신 포도나무의 비유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한 질문을 유발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②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 ③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 ④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제목 : 불 의 사

본문 :



제 5 과

주의 만찬

·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시 116:12~19

* 이 찬송은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갖고 부드럽게 이어서 찬송합니다.

물론, 3, 4단의 절정 부분에서는 힘이 필요하겠지요 (무거운 느낌이나 지나치게 느린 템포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빠르게 ♩ = 103

가사의 발음 분명하게

1. 주 예 수 해 변 서 떡 을 떼 시
2. 생 명 의 말 씀 인 나 의 주 여
3. 내 주 여 를 내 맘 에 보 내 서
4. 성 령 을 내 맘 에 보 내 서

이 부분은 가사의 운율이 바뀌는 곳이므로
무심코 가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4번째부터
(v)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음정이 낮아지지 않게 주의,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

반드시 절절하게 찬송하여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절정 : 힘차게

여기드 위의 둘째단에서와 같이.

5fz

음정의 폭이 넓지만
음이 서로 이어지도록
찬송합니다.

(스포르잔도
그음을 특히 세게)

영 해 내 영
생 면 명 씀
의 서 에
앙 무 평 감
식 리 화 추
을 물 료 인
나 먹 누 창
에 임 리 진
게 갈 리
도 이 록
영 해 내 영
생 면 명 씀
의 서 에
앙 무 평 감
식 리 화 추
을 물 료 인
나 먹 누 창
에 임 리 진
게 갈 리
도 이 록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8)

미국 뉴욕 맨체스터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 래드버리(M. A. Lathbury, 1841~1913)는 1877년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여 하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며 놀라 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 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들을 먹이셨 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 의 몸이라 칭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 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몸소 십자가에 못 박 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고 계십니 다.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 주신 생명의 양 식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 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 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리듬이 아니라 한 박자 한 박자 차분한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 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서(서론)

시편 116편은 주의 만찬을 아주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구약의 본문이 주의 만찬의 역사적 배경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전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 하리로다”(1~2절). 이것은 우리 구주의 고백이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두려운 죽음의 깊은 골짜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이 담긴 오늘의 시편에서, 주의 만찬에 대한 깊은 의미가 조명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주의 식탁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송가를 들어보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 ① 구약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배운다.
- ② 성찬의 의미를 성찬 주일에 적용시킨다.

10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8일 3월 1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31일 6월 1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30일 10월 1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31일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시 116:12~19절을 읽고, 정해진 구절, 정해진 핵심 단어에 따라 자신의 말로 기록해 보십시오).

- ① 12절 - 은혜, 보답

- ② 13절~14절 - 구원의 잔

- ③ 15절 - 성도의 죽는 것

- ④ 16절 - 주의 종

- ⑤ 17절~19절 - 할렐루야

2. 다음 주일 설교('주의 만찬')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구원'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시편 116: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 ② '은혜'에 대한 단원을 읽으신 후, 시편 116:12~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 ③ '통치'에 대한 단원을 읽으시고, 16절에 나타난 내용은 출애굽과 성만찬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 ④ '약속'에 대한 단원을 읽고, 18절과 19절이 성만찬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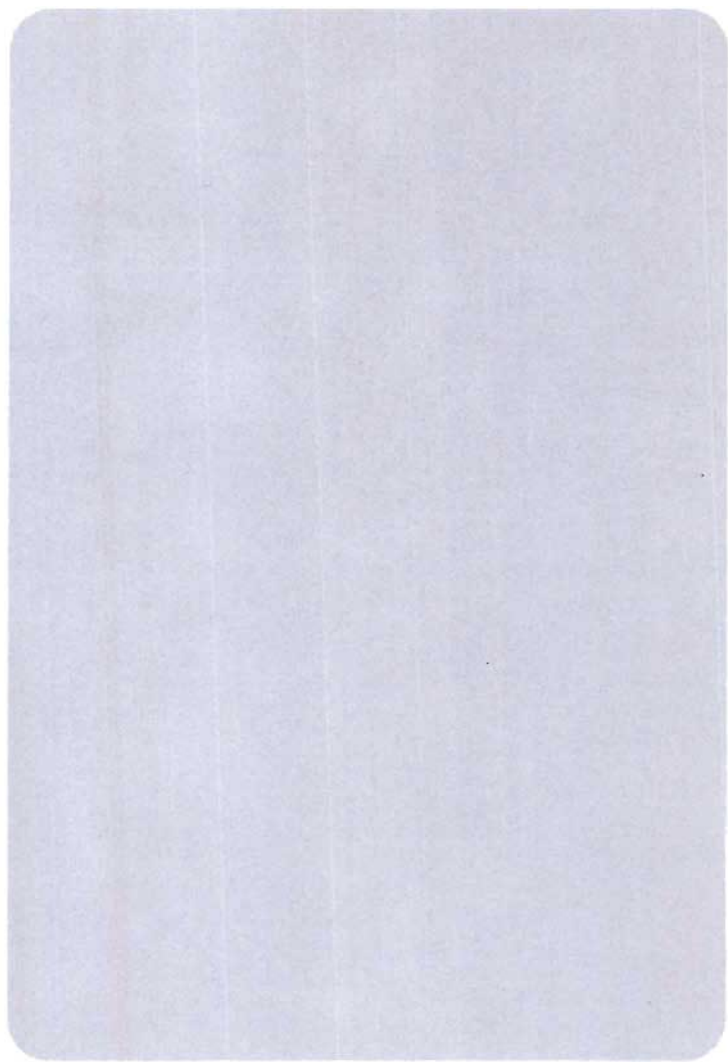
1. 돌아오는 주일인 2002년 9월1일, 이 특별한 날에, 주의 만찬은 준비되어있고, 여러분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이 지나서 2002년 9월 7일이 되면, 충현교회는 설립 4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진실로,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재림을 소망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는 주께 한없이 감사해야 하며, 끝없이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을 기억하고 지금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2. 이제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① 돌아오는 성찬에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 ② 성찬을 통하여 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소서.
- ③ 성찬의 시간에 각자의 영혼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 ④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 ⑤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제4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하동해안도코방삼

하동해안도

하동해안		송	정
하동해안		하동해안	
하동해안		코	하
하동해안		무교	주

하동해안 하동해안도코방삼

하동해안도코방삼 하동해안도코방삼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8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박인기(13-26일), 이성욱(1-12, 27-31일)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